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정향누리 상품권 400억원 '조기 완판'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도입한 정향누리 상품권이 조기 완판됐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400억원대 정향누리 상품권이 연발 한 달여 앞두고 조기 완판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상품권 판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완판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4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10% 특별한 인판매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대비 848개 늘어난 총 4,225개 가맹점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1등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2022년에도 금년 수준의 발행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줄포면 새마을부녀회 면지 협찬금 100만원 기탁

지난 19일 줄포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강도순)는 줄포면사무소를 방문해 줄포면지 발간에 써달라며 줄포면지편찬위원회에 협찬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줄포면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이웃돕기,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을 위한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강도순 부녀회장은 "각 마을의 부녀회장들이 모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생각하다 그동안 모이온 회비를 줄포면지 발간에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이음범 편찬위원장은 "새마을부녀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기부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그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내실있는 면지가 편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더불어 함께 행복한 복지다'

전북지사보협,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 전북 실현 앞장' 다짐

전라북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전복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 전북 실현 의지를 다졌다.

정읍시와 전북도와 주최하고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전복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가 지난 19일 정읍에서 열렸다.

'더불어 함께 행복한 복지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컨퍼런스는 전복협의체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14개 시군 협의체의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 주제강연과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는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이경진 전라북도 사회복



지과장 14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고, 정읍시 공식 유튜브로 '정읍 SEI'로 실시간 중계됐다.

유공자 표창은 민간인 부분에서 ▲전주시 문인호 ▲정읍시 박경희 ▲남

원시 안대회 ▲진안군 정소양 ▲무주군 윤주영 ▲임실군 한갑수 ▲순창군 서한복 씨 등 7명과 공무원 부분에서 ▲정읍시 이은아 ▲김제시 나윤경 주무관 등 2명이 수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제강연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변화된 환경에 협의체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와 각 시군의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위드코로나'시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한국성공컨설팅연구소 강석동 소장은 코로나 시대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김장쓰레기 특별처리대책 추진

채소 걸잎·뿌리... 투명비닐봉투, 씻거나 절여지면... 음식물쓰레기

고창군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김장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 31일까지를 김장쓰레기 특별처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단계(사전홍보·집중수거·사후관리)로 구분해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 홍보기간에는 김장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요령 등을 각 읍·면 이장회의나 자체교육시 집중 홍보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점검한다.

집중수거기간에는 이동처리반을 운영해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이동반을 통해 김장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 배출실태를 점검하고, 특별단속도 펼친다.

사후관리기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다.

특별처리대책기간 중 김장재료를 다듬으면서 나온 배추·무 등 채소를 다듬은 걸잎과 뿌리 등 김장관련 쓰레기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

고, 물로 씻거나 소금물에 절이는 등 김장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올바른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기계고장 원인이 되는 지푸라기, 노끈, 휴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하고, 물기를 털고 잘게 찢어 배출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안심 보육환경 조성 '앞장'

정읍시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응하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 아동 인구가(만 18세 이하)는 14,300여 명이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7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든 아동은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캠페인에는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청 직원들을 비롯해 정읍경찰서와 정읍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등교·출근 시간에 맞춰 한솔초등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피켓·플래카드를 이용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폐지를 알려 올바른 양육법으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112)와 아동학대 유형·신고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시는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추진에 맞춰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관리 향상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아동학대 긴급전화(063-536-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정읍아산 병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행안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박한철, 부녀회장 강영제)는 지난 19일 불우가정과 홀몸어르신 등 행안의 어려운 이웃에게 고추장 나눔을 실천했다.

"나눔을 통하여 따뜻함을 느끼길"

부안 행안면 남·여 새마을지도자회, 고추장 나눔 실시

부안군 행안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박한철, 부녀회장 강영제)는 지난 19일 불우가정과 홀몸어르신 등 행안의 어려운 이웃에게 고추장 나눔을 실천했다.

행안면 새마을지도자회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매년 고추장, 김치, 쌀, 반찬 등 나눔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 나눔에 앞

장서고 있다. 강영제 새마을 부녀회장은 "매년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끼며, 올겨울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년보다 더 몸과 마음이 외로울 이웃들이 이번 나눔을 통하여 따뜻함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준공, 주차난 해소 기대

고창군 고창읍내 중심사거지에 288면의 주차타워가 준공되면서 도심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구의장 및 군의원 성경찬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는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고창읍 읍내리 197-4번지 외 15필지에 지상 3층 4단 규모로 건립됐다.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0억, 군비 40억)을 투자해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0개월 만에

완료했다. 주차구획은 총 288면으로 일반주차 구역 125면, 장애인전용 7면, 전가차 2면 등으로 구성됐다. 층별 주차현황 및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유도 시스템 엘리베이터, 비상벨 CCTV 등 최신 설비를 갖췄고,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유료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차관계 시스템이 설치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주차타워 준공으로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